고객과 함께하는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제1760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11월 16일 (음력 9월 26일) 목요일

영어 사교육비 年 15조 쓴다

삼성경제硏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 교습법을 바꾸고 시범지역을 정해 영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15일 '영어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영어 관련 국내 투자액을 사교육비 14조3천억원, 평가비용 7천억원 등 약 15조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영어 투자액은 우리나라 GDP 806조6천억원의 1.9%, 영어 관련 사교육비는 교육예산 30조1천억원의 4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분석에서 영어 관련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전체 학생 1천193만5천명이 한 달에 평균 10만원(1년 120만원)씩 영어 학습에 지출한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됐다.

1인당 年120만원 지출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막대한 투자에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한국인의 외국인 구사능력은 61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에 불과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경영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경제위험컨설팅(PERC)도 아시아 12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영어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내 164만가구 공급

신도시 분양가 25% 인하…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

11·15 부동산 안정 대책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의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으로 공공택지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1~2.5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 절감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25% 가량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11면〉

또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만기 10년 이상 대출 등의 예외조항을 없애 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8만9천가구(신도시 4만3천가구, 국민임대 4만6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천가구에서 86만7천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천가구를 공급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로드맵은 2007년 29만7천가구, 2008년 39만2천가구, 2009년 36만4천가구, 2010년 40만3천가구로 연평균 36만4천가구가 공급돼 수도권의 총수요 30만가구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6만~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헥타아르(ha)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용적률을 175%→191%로 각각 높이고 녹지율은 31.6%→27.2%로 낮추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DTI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가격의 40%로 돼있는 은행·보험사의 LTV 규제에서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40%를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이던 것을 50%로 낮춰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여수엑스포 직접 챙기겠다"

盧대통령 지지 서명…유치활동 정기 점검

정부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박람회 유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해양수산부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추진 상황보고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특이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다 확실한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다시 세워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유치 활동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치 작업을 전면에서 지휘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체와 민간 단체 등이 유치작업을 벌이면서 역할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개최권 확보를 위한 내부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최지 결정 절차를 주관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의장과 로세르 탈레스 사무총장 및 BIE회원국 대표에게 보내는 정부의 유치의지 서한에 서명했다. 이 서한은 앞으로 BIE의 개최지 결정을 위한 후보지 실사보고서 등에 첨부해 유치교섭 활동에 활용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

간절한 기도

초등학교 이후 12년 공부가 16일 하루에 달렸다. 2007년도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광주시내 한 고교 여학생이 이날 교부 받은 수험표를 책상 위에 올려 놓은 채 좋은 성적을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대입 수능시험

8시10분까지 입실해야…성적표 내달 13일 배포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6개 시험지구 971개 시험장에서 58만8천890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다. 광주·전남지역 응시자는 광주 1만8천211명, 전남 1만5천755명 등 모두 3만3천966명이다. 〈관련기사 7면〉

2008학년도부터 수능 성적이 영역별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이 산출되는 수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1교시 언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언어-수리-외국어(영어)-사회·과학·직업 탐구-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 5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응시원서에 붙은 것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군 지역 중 담양·해남읍 포함)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듣기·말하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15분 동안, 오후 1시20분부터 20분 동안 버스·열차 등 모든 운송수단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해야 하며 경적사용도 금지된다.

시험성적은 26일간의 채점을 거쳐 오는 12월13일 개별 통보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대 한의학대학원 유치 실패

교육부, 부산대 선정

전남대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가 끝내 무산됐다.

전남대는 옛 여수대(현 전남대 여수캠퍼스)와의 통합 전제조건으로 여수캠퍼스 내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내걸고 그동안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다. 〈관련기사 8면〉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심사위원회를 열고 6개 신청 대학 가운데 부산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학정원 50명 규모로 설립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는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원광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등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5개 사립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0%씩 줄어들게 됐다.

한편 전남대와 여수지역 사회는 부산대 선정 소식에 당혹해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호응, 종합대학간 통합에 성공했고 여수캠퍼스에 교사(敎舍)까지 확보했는데 경쟁에서 탈락한 데 대해 구성원들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건의문을 보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던 여수시의회, 경제단체,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학 간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무산되면서 '통합 무효화'운동까지 벌일 방침이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